

80년 이상 화순 지역경제 이끈 큰 축이 무너진다

초임기 들어간 화순탄광 폐쇄

광부·가족 등 1000명 생계 위협 정부 "폐광기금 50억원으로 충분" 화순군 "지원 늘려 대체산업 육성" 폐광 지자체 연대 정부 설득 나서

정부의 채탄량 한도 설정에 따라 화순 지역경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한석탄공사 몫으로 약 100만t을 설정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면 지난 80년 이상 화순 경제의 큰 축을 맡아온 화순광업소가 3~4년 내 폐쇄되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탄소중립·탈석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없다면 지역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다만 정부와 석탄공사 경영진이 채탄량 한도 완화(폐광연기), 처우 및 실업 대책 등을 놓고 노조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 대책 촉구는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지난 1989년 70만5000t의 생산량으로 연 최대 실적을 올리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1990년대 들어 석탄산업 쇠락과 정부의 감산 정책에 따라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지난 2020년 생산량은 9만1700t에 그쳤다.

화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업 부문 비중도 지난 2005년 5.1%에서 2018년 1.5%로 급감했다.

광산업 비중은 줄었으나 여전히 화순광업소는 고용 효과 등 화순 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다.

당장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두 314명이다. 공사 소속 노동자 118명, 협력사 직원 196명이다. 직원 314명과 가족을 포함하면 약 1000여명의 주민으로 이들 가운데 약 80%가 화순에 터를 잡고 산다. 노동자 임금 몫으로 2021년 기준 약 120억원의 자금이 화순지역에 풀리고 사업소세 등 세금과 공사비, 자재비, 각종 경비 등 약 80억원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

광업소 폐쇄시 노동자 314과 가족 등 1000명 안팎 주민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폐광(석탄 감산)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함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화순은 백산·의약 산업, 강원은 산림·관광·여가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화순 등 폐광 지자체는 정부가 채탄량 한도를 설정하듯, 1998년부터 지급되던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기금은 카지노업(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매년 조성돼 7개 폐광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이마저도 코로나19 등 카지노 영업에 따라 변동되는 연 50억~100억원 수준의 화순군 몫으로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화순군 최영미 도시과장은 "지금껏 폐광기금에 관련법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지구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사업, 환경 및 보건위생 복지 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조원들이 지난 10일 정부의 폐광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 투표를 한 뒤 막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사용처가 광범위한 폐광기금만으로 대체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폐광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정부와 석탄공사 노조 측 갈등이 수습된 이후, 폐광 지자체가 연대해 본격적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강원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용역 결과

를 토대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최초 광부 등록 시점은 1905년, 일본미쓰이기업이 1934년 7월 채광을 시작해 해방 이후 상공부 직할로 운영되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창립된 대한석탄공사 소속이 됐다. 1950~1980년대까지 1000~2000명의 광부들이 캐

낸 석탄은 화순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2021년 생산량은 7만5200t, 누적 생산량은 무려 2653만2000t에 이른다. 추정 매장량은 1031만~1760만t, 2020년 생산 기준으로는 약 190년 생산이 가능하다고 석탄공사는 보고 있다. 생산되는 무연탄은 현재 전량 연탄제조에 사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이재명 "폭압·공안정치로 돌아 갈건가"尹 맹폭

충청·제주 돌며 적폐수사 발언 비난 '정치보복' 프레임 강화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 마지막 주말에 충청과 제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을 연일 맹폭했다.

'적폐수사' 논란을 끌고가면서 윤 후보를 '정치보복' 프레임에 단단히 가둬오면서 여론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동층을 끌어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참혹한 보복의 현장에서 다시 보복을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 정치보복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즉석연설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돼 촛불도 업단하고, 언론사도 마구 폐쇄하고, 5년짜리(대통령)가 감히 검찰에 겁도 없이 달려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검찰 국가가 되면 누구의 불행이겠냐"면서 윤 후보를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신 정권이 우리 노무현(전) 대통령을 정치보복 하는 바람에 그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기억을 기억하느냐.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후보가 있다"면서 고(故)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이 후보는 특히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도 부족할 판에 고위공직자, 사정권력자의 가족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 방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직접 겨냥했다.

이러한 '공세' 모드에는 2월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세 혹은 하락세를 보이던 자신의 지지율이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표출 및 사과요구 이후 회복 국면을 보이는데 대한 자신감도 엿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의 유일한 생선 독립운동가인 강태선 애국지사를 만난 사실도 공개하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를 위한 정치에 운임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여수·순천 찾은 윤석열, 전남 8대 공약 발표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여수·순천 등 전남 방문 일정에 맞춰 크게 8가지로 압축되는 전남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첫째 공약으로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전남지역 인근 영해 농지 430만 평을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이곳에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약속했다.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발사체 및 위성 부

품 제작·조립·시험·발사의 모든 과정을 집약적으로 수행하는 첨단 우주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민간주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우선 현재 복선 전철로 운영되는 익산-여수엑스포역 구간을 KTX 고속화하고, 운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고속철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의 고속도로 인프라 규모가 전국의 8.7%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전남 고속도로(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 순환고속도로)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영암-진도 고속도로 등을 개설해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한 ▲광양항 세계적인 친환경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 공항으로

육성 ▲화순 점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남형 푸드바이오 벨트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 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무안국제공항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우리나라 관광과 물류의 관문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신성장 중심의 위상에 걸맞은 관문 공항으로 키우겠다. 항공·항만·육상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 벨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연륙·연도교 개설을 통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섬 주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윤 후보가 내놓은 전남 발전 공약 일부는 구체적 사업 대상지 입지가 제시돼 있지 않았고,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착수 시기와 종료 시점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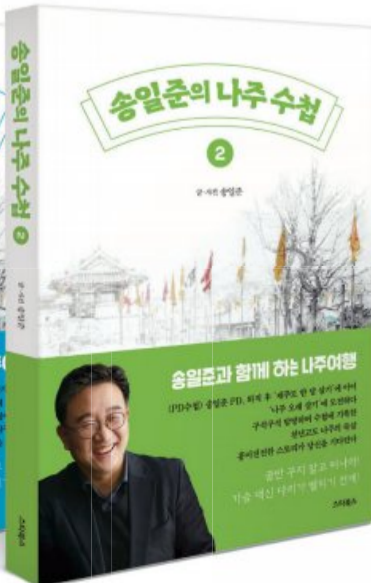
나주배 나주곰탕 말고 또 있어?

몰라도 너무 몰랐던 천년고도 나주의 매력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진다

나주의 전설과 매혹적인 역사문화를 찾아서
홍어·나주곰탕의 원조에서 즐기는 살아있는 맛
굽이 도는 영산강가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송일준 PD와 함께




송일준의 나주 수첩 1
부서 방문



송일준의 나주 수첩 2
부서 방문

송일준PD 제주도 한 달 살기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송일준PD
제주도 한 달 살기

송일준 PD가 1년 11개월 동안
제주도 18개 구역을 1인 1일 1곳씩
방문하며 기록한 제주도의 숨겨진 이야기

송일준 PD가 1년 11개월 동안
제주도 18개 구역을 1인 1일 1곳씩
방문하며 기록한 제주도의 숨겨진 이야기

송일준 PD가 1년 11개월 동안
제주도 18개 구역을 1인 1일 1곳씩
방문하며 기록한 제주도의 숨겨진 이야기

스타북스 Tel: 02-723-1188 | Fax: 02-735-5501 | 이메일: starbooks22@naver.com